

“언제나 내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는 고마운 책”

다큐멘터리 감독 류미례씨가 뽑은 안도현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

제27회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친구—나는 행복하다 2>로 우수작품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제작자 류미례씨(31). 그는 시상식장에서 “편견도 동정도 아닌 그저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성인 정신지체인들의 일상을 그린 이 작품을 찍기 위해 그는 관악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정신지체인들과 함께 생활했다. 아니 작품을 구상하기 전부터 재활센터 지하방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그들과 동거동락해왔다. 그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안도현의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문학동네)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시는 추상의 세계고, 범인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시들에서 보이는 현실도피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취향도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 책은 달랐죠. 평이한 말들로 자잘한 일상을 담아낸 시구들이 인상적이었죠.”

류씨는 대학에서 한국사학을 전공했다. 학교 다닐 때는 노동운동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기에 잦은 휴학으로 졸업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이 책을 만난 건 문학소녀를 꿈꾸던 오빠의 책장에서였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모든 것이 막막하던 시기였어요. 이 책은 그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 저기까지만 더 가 보자’며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줬죠.”



“대학을 졸업했지만 모든 것이 막막하던 때, 이 책은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줬죠.”

그때 이후 오빠의 책은 자연스레 그의 서가로 옮겨왔다. 시집 맨 앞장에는 “언제나 내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는 고마운 책”이란 글귀가 써여있다.

그가 다큐멘터리의 세계에 입문한 건 민예충에 근무하던 시절이다. 그는 현실을 올곧게 반영할 수 있는 예술장르로서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세상에 없는 길’을 찾으려 했던, 못다 이룬 대학시절의 꿈에 뒤늦게나마 한발 다가섰던 것이다.

그는 그동안 <동강은 흐른다> <20일간의 고백> 등 주로 조감독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왔다. <친구...>는 그가 제작한 두번째 작품. 특히 이 작품을 찍을 때는 렌더링 작업을 하다 아기를 낳으려 갈 만큼 열정을 보여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촬영보다 내가 혹시 이들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갈등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말한다. —박속순 기자

www.hakjisa.co.kr www.eNonmun.com 학지사 팜사이컬러지 북스 시리즈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POP PSYCHOLOGY SERIES

삶의 지혜를 주는 책 ·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책

분노 스스로 해결하기 한기연 지음 사륙판/양장/216면	당신이 원하는 친구가 되는 법 강선미 외 공역 신국판/반양장/208면	털어놓기와 건강 박광배 · 김종한 공역 신국판/반양장/328면	에니어그램 에니어그램 윤운성 김봉환 송의열 이주하 정정옥 황임란 공역 신국판/반양장/370면	사랑은 바람을 타고 외도의 심리와 상담 양유성 지음 신국판/반양장/272면
가치중심의 리더십 홍기원 역 신국판/반양장/356면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 관정혜 · 이정운 · 조선미 공저 신국판/반양장/288면	화가 날 때 읽는 책 [개정판] 홍경자 · 김선남 공역 신국판/반양장/320면	창의적인 사람들의 7가지 비결 최창호 지음 신국판/반양장/432면	사이코 실험실 -무엇이 시름을 움직이는가?- 최창호 지음 신국판/반양장/288면
기분 다스리기 권정혜 역 신국판/반양장/328면	NLP의 원리 설기문 역 신국판/반양장/280면	디자인과 인간심리 이창우 · 김영진 · 박창호 공역 신국판/반양장/302면	정말 고민이에요 에드워드 장, Ph.D., RPC 지음 신국판/반양장/334면	신나게 사는 '끼' 서정희 지음 신국판/반양장/256면

도서출판 학지사 120-193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 187-10 혜전빌딩 2층 전화:(02)363-1333 팩스:(02)365-1333